

무주군, 적상면 작은도서관 조성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KB국민은행과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업무협약

무주군은 지난 31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대표 김수현), KB국민은행(호남(전주)지역본부장 이진순) 등과 2022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적상면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세 기관은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에 협력해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행유권 보장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협약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와 인력,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키로 했으며 KB국민은행에서는 1억 원 상당의 조성 후원금을 지원한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서가와 열람석 테이블 등의 비품과 도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부방이자 마을사람들이 화합을 다지는 어울림터"라며 "적상면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에 힘써 우리군 또 하나의 문화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무주읍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도서관과 각 읍·면 작은도서관(무주읍·적상면·반딧불 작은도서관, 샘누리작은도서관, 안성 작은도서관)의 연계 방안을 찾아 적용



무주군은 지난 31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대표 김수현), KB국민은행(호남(전주)지역본부장 이진순) 등과 2022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 적상면 작은도서관은 적상산로 일원에 132.7㎡ 규모로 상반기 조성예정이며 무풍면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김경복 소장은 "우리 군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읍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내 작은도서관들이 내년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도서관과 함께 군민의 문화 기본권을 충족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SOC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은 지난 10일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연면적 4,5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유아·어린이·일반자료실과 교육실, 사무실 등을 갖춘 공공도서관(2,000㎡),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공독육아나눔터 등이 입주할 가족센터(1,500㎡), ▲미취학공간을 비롯한 학습 공간, 마루 공간, 방음 공간 등이 지리하게 될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진안군,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실시

진안군은 1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로 ▲소 333농가 10,000두 ▲염소 130농가 5,000두이며,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접종은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접종 후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7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접종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농가에서 관찰 읍·면 또는 공수의사에 사전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해 향후 재점검 결과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소·염소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구제역 백신접종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은 빈틈없는 방역관리로 가족살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장수군은 지난 30일 초·중·고교 불철개화기를 맞아 장수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인근 상가, 장수시장 등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및 술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으며 활동과 함께 청소년의 보호의식 확산과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이성혼

숙 등 묵인·방조 행위,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부착 여부 확인 등의 계도·점검도 실시했다.

장수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7개 읍면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점검 및 환경 개선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김창수 전 장수농협 조합장, 장수군수 출마 선언

미래전략 위한 주요 공약 제안

김창수 전 장수농협 조합장이 지난 31일 장수군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장수군의 3대 문제점을 '역대 민선 군수들의 부정부채 이수',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 '장수군의 미래전략 부재'를 꼽으면서, 8기 민선 장수군수의 책임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기존



민선 군수들이 대부분 기소되거나 부정부채와 비리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관내 가장 큰 조직인 장수농협 조합장으로서 잡음 없이 운영해온 경험을 부각했다.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민주당에 극도로 유리한 민심지형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질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특히,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가 다가온 만큼, 장수군이 국가의 국책사업 유치에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단체장보다 무소속 단체장이 더 효능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지금'은 무소속 군수를 선출하는 것이 장수발전의 위한 전략투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수 예비후보는 장수군의 미래전략을 위해서 농민공익수당 최저임금

연동제 초·중·고 장수군에서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 대학 2년까지 등록금 지원, 청년수당 확대, 박물관·미술관 설립유치 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시민사회 및 공무원노조 소통 강화, 농축산업 현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창수 예비후보는 장계농고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중퇴)를 나왔으며, 관내농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신망을 얻었으며 장수농협 재선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서 지역 사회의 신망이 두둑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하여 3표진 구도 속에서 30.6%를 득표하여 2위를 차지하며 준제값을 나타낸 바가 있다. 현재 장수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 선출이 마무리된 김창수 예비후보와 1:1 구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안내원 근무복 지급

진안군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마안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안내원 11명에게 근무 여건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일된 근무복을 지급했다.

현재 진안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6명과 외국어통역안내원 5명이 마안산 남부·북부 관광안내소를 거점으로 해설요청을 받은 관내 주요관광지에 다니며 우리군 문화·관광·지질·역사 해설서비스를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군은 통일된 근무복 지급으로 관광객들도 한눈에 알아보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 관광객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관광안내소 정비도 함께 진행해 코로너9 이후 체면진 진안 내수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진안군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안내원 종사자

들이 자부심을 갖고 관광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어 보다 나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재길 관광과장은 "포스트코로나 및 불철벚꽃관광 대비하여 관광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오니 진안군을 방문해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안내원과 함께 여행하며 보다 생생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대상자 3명을 선정 완료했으며, 향후 교육(4월 중) 및 수습(7~9월)을 수료한 후 최종 합격자에 대해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안내원 해설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마안산 남부 관광안내소(063-430-2651)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을 주치의의 시스템 구축·비대면 진료 활성화 강구”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복지정책 핵심공약 발표

장수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양 부위원장)이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복지



를 누릴 수 있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한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복지 공약의 주 골자로는 ▲마을 주치의의 시스템 구축 ▲비대면 진료 활성화 강구 ▲인근 도시 대형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 시 이동차량 및 비용 지원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기저귀 무상 지원 ▲여성 생리용품 무상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65세 이상 지소 진료소 본인부담금 면제 추진 ▲행복콜택시 운영 확대와 개선이다.

특히 마을 주치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마을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적극적으로 계획적인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강구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약을 집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강구'라는 표현을 했지만, 장수군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 부위원장은 인근 도시 대형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고, 비급여 의료비를 할인받아 주민의 의료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시 이동차량과 비용을 지원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담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회에서 치매 어르신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무상 기저귀를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전체에게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12세에서 18세까지 지

급되고 있는 여성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전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대상포진 발병률이 50대 여성에서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50% 지급을 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고, 의원에서만 시행되는 65세 이상 지소 본인 부담금 면제를 지소 진료소로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행복 콜택시의 경우 전화연결 체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집까지 운행을 하도록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특히 인구에 비례해 갖춰질 수밖에 없는 의료 인프라의 공백을 최소화해 도농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기존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확대 실행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후원회 회장으로 예정된 박근호 전주 고려병원 원장님과 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창업의 꿈 향해 한 걸음 더’

진안군, 내 일(my job) 창업 아카데미 수료식

진안군은 지난 31일, 청년공간 월림에서 진안내일 창업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사업실적 보고, 수강생 소감 발표,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 12명 중 9명(참여율 80% 이상)이 수료의 영광을 안았다.

진안 내일창업 아카데미 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관내 예비·초기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수강생들은 지난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달간 ▲창업기초교육(창업 II) ▲실무교육(아이템 도출, 상권분석, 마케팅, 회계) ▲정부창업사업소개 및 그룹별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등 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 참가해 창업의 꿈을 함께 그려왔다.

이를 통해 지난 29일에 열린 창업경진대회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들은 등 참가자의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1:1 컨설팅 및 피드백도 이뤄졌다.

특히 내일 창업 아카데미는 단순히 청취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정부창업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실습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022년 재활용품 교환사업 실시

장수군은 지난 31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종이팩·폐전지·이시팩·친환경상패를 화강암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교환은 종이팩은 아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해야 하며 200ml이하는 40개, 200ml초과~500ml이하는 20개, 500ml~1,000ml이하는 10개가 기준이

장수 입업경영체 등록 안내

장수군은 지난 31일 올해 시행되는 입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입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입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입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입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입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입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이며 입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입업대상 농업경영체(입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어 5월 말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입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입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직불금 지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환경농업대학 개강

진안군은 지난 31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2년도 진안 환경농업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진안환경농업대학'은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22번째 신입생을 맞이해 사과과정과 청년농업 CEO 등 2개 과정을 10월까지 운영한다.

3월 31일에 열린 사과교육 1회차를 시작으로 매주 화, 목요일마다 교육이 열리며 약 8개월간 이론과 실습·협동교육을 병행해 실제 영농현장에 적용 가능한 재배기술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과(종급)과정은 4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수업에 앞서 개강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홍로원 김재홍 강사가 '사과 기초 이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군, 제77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은 지난 31일 국립태권도원 내 도약센터 앞에서 제77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사·학·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궁화 심기(0.5ha, 4백본), 묘목 나누기(자두, 살구, 매실, 양두 등 250본) 등이 함께 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심는 한 그루의 나무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숭수게 하고 이곳 태권도원과 무주,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꽃 피운다는 기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전 세계 태권도 선지 태권도원에 심는 만큼 국가 태권도가 빛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열원 또한 현실이 될 것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활짝 핀 무궁화와 함께 우뚝 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볼 날이 멀지 않겠다"라며 "여러분이 발판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성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황인홍 군수는 태권도 위상 정립과 태권도원 발전에 헌신해준 공로를 인정받아 태권도진흥재단 오은환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전문선기자